

# 영광군, 전남 농정업무 大賞

### 지난 2013년 이후 6년만에 이룬 쾌거 역대 농업인 육성 등 실적 인정 받아



영광군이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별화된 시책추진을 인정받아 2019년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대상(1위)을 수상했다.

이는 민선7기부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꾸준히 투자한 결과 민선7기 들어 영광군 농업의 위상을 드높인 수상이며 지난 2013년 대상 수상 이후 6년 만에 이룬 쾌거이다.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정업무 우수 추진 시군에 대한 평가·시상으로 ▲농업·농촌 활성화, ▲친환경농업 추진,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식품산업 육성,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육성, ▲동물방역 및 축산위생 강화, ▲자재 시책 추진(가점) 등 총 6개 분야 30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영광군은 역대 고소득 농업인 육성,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 환경친화형 축산시책 추진, 기후전염병 방역 분야 등에

서 그 실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민선6기부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육성하기 위해 선진 농업복지시스템을 구축을 목표로 농업인회관 건립, 찻머 등 특화품목 육성·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의 시책을 우수하게 꾸준히 추진하였고 농업생산 분야의 뛰어난 장점을 농식품가공·유통 분야로 연계시켜 보리산업을 중심으로 6차산업을 현장에 접목시키며 지역 먹거리산업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민선7기에 이르러 역대 농업인이 40%로 전년 대비 24% 증가와 70억 규모의 대형 공모사업인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농업이 우리 군 근간사업이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한다.”며 “WTO 개도국 지위포기, 농촌 부녀화 등 농업환경이 대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요즘,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농업인과 함께 땀 흘리며 현장 맞춤형 농정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송월동 주민자치위, 순천 문성마을에서 협동을 배우다

### 주민자치 역량 강화 위해 先進地 견학

### 순천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꼽힌 문성



나주시 송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주민자치 및 지역 공동체 형성 역량 강화를 위해 순천시 주암면 문성마을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진지 견학에는 주민자치위원,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동직원 등 42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순천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된 문성마을의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아미산 자락 아래, 자리한 문성마을은 풍경이 아름다운 서당이 있다해서 ‘서당골’로 불리며 총 25가구 주민 39명이 거주하는 소규모 부락이다.

모든 농촌이 그러하듯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침체해가던 마을을

살리기 위해 마을 어르신과 주민, 귀농인들이 합심해 지난 2012년 순천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마을사업을 시작했다.

마을 대표 작물인 콩을 활용해 콩 가공 공동체 소득사업인 메주 숙성실을 건축, 마을 전통으로 전수되는 옷나무로 숙성 된장을 만들어 마을 공동 소득증대 사업 성공을 거두며 2015년 전남 행복마을 콘테스트 소득 체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견학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날 문성마을 사무장의 교육을 통해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침체해가던 시골마을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었던 계기와 과정을 들으며, 주민 협동과 상생에 대한 안목을 넓혔다.

주민자치위원 A씨는 “마을 공동소득 창출을 위해 정직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문성마을 주민들에게 협동과 상생의 가치를 배우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화순시네마, 가을영화제 개최... 8편 무료 상영

### 18일부터 20일까지

화순시네마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가을 영화제를 연다. 이 기간에 관람객은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가을 영화제는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작은영화관이 동시에 개최하는 영화제다.

가을 영화제에서는 국내외에서 호평받았지만, 평소 우리 지역에서 관람할 기회가 없었던 영화가 상영된다. 위안부 이슈를 다룬 <주전장>, 평등을 위한 세기의 재판을 다룬 실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 등 총 8편을 선정한 무료 상영한다.

8편의 영화를 무료 관람하려면, 13일부터 선착순으로 현장에 매해야 한다.

화순시네마는 누적 관객 15만 명 돌파 기념 이벤트도 연다.

화순시네마는 17일 매회 영화 상영 종료 후 티켓 추첨을 통해 영화 상품권과 매점 이용권, 굿 1박스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시네마(www.hwasun.scinema.org, 061-373-7053)에 문의·안내하거나 작은영화관 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화순시네마는 지난해 2월 12일 개관한 이후 지난 9일 현재 누적 관람객 15만321명을 기록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담양군,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평가 ‘우수기관’ 선정

### 지역사회 절주문화 확산에 기여

### 월간음주율 2015년 比 1.3% 감소

담양군보건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실시한 ‘2019년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평가는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실시한 음주폐해예방(절주)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 사례를 공

유하고 지역사회 절주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포상하고자 추진됐다.

담양군보건소는 대상자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음주폐해예방교육, 건강한 직장문화만들기 프로젝트, 지역 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음주폐해예방 뮤지컬 공연 및 캠페인 전개 등 지역사회 건전한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사회건강통계에 따르면 담양군은 월간음주율이 2015년도 45%에서 2018년도 43.2%로 꾸준

히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56% 보다 낮은 편이다.

반면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은 2017년도 14.1%에서 24.8%로 급증하였으며, 전국 19.4%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담양군이 월간음주율은 낮게 나오고 있어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고위험음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고위험음주율이 높은 40~50대를 대상으로 음주폐해예방사업 추진을 통한 건강한 음주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곡성군, 5차례로 나눠 전 직원 대상 친절·청렴 교육

### 친절 인사법, 전화 응대 요령 등 배워 지속적인 교육으로 친절도 높일 예정



곡성군이 군청 대동마루에서 12일과 13일 이틀 간 5차례에 나눠 전 직원 730여 명을 대상으로

친절·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친절 및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된 이광형 강사에 의해 진행됐다. 이광형 강사는 38년의 행정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친절과 청렴! 지방공직자의 생존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사례를 중심으로 민원인의 심리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이며

친절 인사법, 전화 응대 요령 등을 쉽고 재미있게 안내함으로써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군에는 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들이 있다. 하지만 모두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전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근무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